

지역 매 아리

김제시, 재난에 적극 대응

2019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실시

김제시는 지난 31일 김산3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302동에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을 통해 재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지진발생, 대형화재 등 급증하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수분(국토부)-지대본(김제시)-지수본(LH)-긴통단(김제소방서) 간의 통합연계 훈련으로써, 김제경찰서, 제8098부대 3대대 등 20여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 대규모 훈련이다.

훈련은 규모 6.7 지진이 발생했음을 가정한 뒤, 김산3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302동이 1차에는 일부 붕괴 및 화재, 2차에는 전면 붕괴 및 화재로 확대된다는 복합재난 상황을 설정한 뒤,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시, 열대야 기간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현장에는 구급차, 소방차, 굴삭기, 청소차량 등 다양한 장비가 동원되었고, 폭발음, 연막탄 등도 활용되어 실제 재난현장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였으며, 훈련 참가자들은 상황전파는 물론, 긴급구조 활동 및 수습·복구활동 까지 재난상황 전반에 대하여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본 현장 훈련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김제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토론훈련이 진행되었는데, 13개 협업부서 및 9개 유관기관이 참여 하였으며, 임무와 역할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였다.

특히 재난현장 관리, 원활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 추가 피해에 따른 대책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토론을 하였으며, 그 밖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전 직원 대상 청렴특강

완주군이 청렴 공직자 마인드 함양에 적극 나서, 청렴 완주군을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 31일 완주군은 광주고등검찰청 송승섭 검사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송 검사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직원들의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주제로 한 공직기강 교육도 함께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기도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수소전기차 넥쏘, 관용차 도입

완주군, 올해 54대 민간 보급 계획... 버스 운행도 실시

수소시범 후보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완주군이 수소전기차를 관용차로 도입했다.

지난 31일 완주군은 30일 관용차로 수소전기차 넥쏘(NEXO)를 전격 도입하고,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에 발맞춰 관용차량 활용은 물론 민간 보급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사회 조기 진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 54대의 수소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하고, 매년 지속적인 보급과 수소전기버스도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전기차는 초미세먼지의 99.9%를 제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며 넥쏘(NEXO) 1,000대를 운행할 경우, 디젤차 2,000대분의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나무 6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탄소 저감효과까지 있다.

전북1호 완주수소충전소가 내년 1월 완공됨에 따라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은 올해 연말부터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가양주와 안주 콘테스트' 예선전 후끈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26팀 가양주, 16팀 안주 출품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2019년 술익은 날 행사의 대표프로 그램인 '가양주와 안주 콘테스트'가 예선전부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완주군은 최근 진행된 가양주와 안주 콘테스트 예선전에 26팀의 가양주와 16팀의 안주가 출품작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예선전에서는 관광객들이 몰려 대외 참가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중 전문가 심사(80점)에서 선발된 가양주 9팀, 안주 9팀이 2019년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술익은 날 한잔?!' 행사일인 내달 2일 관광객가(20점)가 더해져 최종 주인과 안주인이 선발된다.

주인(酒人)과 안주인(按酒人) 시상자에게는 각각 1등(1명) 100만원, 2등(3명) 50만원, 3등(5명) 30만원의 상금과 완주군수,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장의 상장도 수여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하반기 역량강화교육마무리

김제시는 지난 24~25일 5차교육, 28~30일 6차교육을 5일간 금구면 삼성생명연수소에서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기수가 연이어 진행되는 교육으로 [4차산업의 도래와 창의력 향상], [2030세대 일터의 소확행 문화조성]이라는 주제로 440여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특히 최근 주목되는 4차산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VR, MR 등 생소하여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을 실제 개발에 참여 중인 개발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쉽게 개념을 정리하는 등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박준배 김제시장 문화조성이라는 주제로 440여명의

기 때문에 바쁜 일정 중에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생들과 동등하게 수업에 참여하였다. 2030세대 일터의 소확행 문화조성 교육에서는 20~30대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원간의 유대강화와 동료애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어 유익한 교육이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제10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 개최 | 1~2일 시민운동장 잔디광장 일원

김제시는 지역 평생교육진흥과 학습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2일 시민운동장 잔디광장 일원에서 '제10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배움으로 하나되는 정의로운 김제!'라는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1개 평생교육기관·단체·학습동아리가

참여하여 체험학습과 무대공연발표회, 성인문화한마당 등 다양한 학습과정으로 꾸며져 풍성한 배움으로 가을을 물들일 예정이다.

홍보체험관인 배움마당에서는 70여 가지 다양한 학습체험과 함께 김제시 평생학습관·여성회관·교육문화회관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이 펼쳐져 유아

또한 완주군은 이미 조성돼 있는 수소산업군을 활용해 완주군민의 특색있는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존산업 육성과 신산업을 적절히 발굴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수소사회의 성공적인 진입을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완주군은 수소경제는 물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군민들의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 향후 전문가 설명회와 전시 체험관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용진읍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 추진

완주군, 상징 조형물 설치 등

완주군이 군청이 소재한 용진읍 진입부에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1일 완주군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2019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총 7억4천만원을 확보, '용진읍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인 진입 상징 조형물 설치, 안내 사인 체계 구축, 보행로 시설 개선, 주민 쉼터 공간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발주를 앞두고 있다.

또한 야간조명 설치를 통해 랜드마크 형성은 물론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인 용진읍은 완주군청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1호점이 자리하고 있는 완주군 진입부로 입지적인 상징성이 무척 크다. 하지만 낙후된 구조·시설물 등으로 경관이 일부 훼손되고 노후돼 있어 경관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완주군은 전문가,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협업을 통해 이번 사업이 최 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31일 요촌리공원 내에서 2019년 김제시 양성평등기금 행사인 '우리집 고추장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성평등 문화 확산 '평등을 일상으로'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 '우리집 고추장 만들기 체험' 행사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순자)는 2019년 김제시 양성평등기금 행사인 '우리집 고추장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지난 31일, 김제시 여성·가족친화거리(요촌리근린공원 내)에서 여성단체, 소소프리마켓 회원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마쳤다.

2019년 양성평등기금사업인 '우리집 고추장 만들기 체험행사'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평등을 일상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고추장 만들기 체험, 대형비빔밥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김제 김산초등학교 5학년 학생 30명 및 김제시 회갑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회원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잊혀져가는 전통장류문화 체험을 통해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전통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순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급속한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잊히고 사라져가는 우리고유의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젊은 세대에겐 전통 장 담그기 방법을 전수하는데 일조하고자 준비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여성이 각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가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제시민들이 정책의 수요자이자 동반자로서 김제시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